

“2009년은 클래식 선율과 함께”

광주 음악 감상실 ‘베토벤’ ‘한울림’ 대중화 나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클래식을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 클래식에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영상으로 연주회를 감상하고 해설을 덧붙인 감상회가 1년 일정으로 진행된다.

영상 음악회 연중 열어

클래식 갈라잡이로 나서는 이는 클래식 마니아 안철씨다. 고등학교 영어교사 출신인 안씨는 KBS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등에서 클래식 관련 코너를 진행한 베테랑으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지금까지 기회가 날 때마다 다양한 감상회를 진행해 왔다.

2009년 영상음악감상회가 열리는 곳은 옛 전남도청 앞 금현빌딩 6층에 위치한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과 상무지구에 자리잡은 ‘한울림’이다. 두 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일부 중복되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안 씨는 계절, 시기 등을 고려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감상회를 진행한다. 특히 멘델스존 단생 200주년(2월 3일), 헨델 서거 250주년(3월 31일), 하이든 서거 200주년(4월 28일)을 맞아 ‘왕궁의 불꽃놀이’, ‘한여름밤의 꿈’, ‘메시아’, 교향곡, 협주곡 등 해당 작곡가의 음악을 집중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베토벤’에서는 2009년 1월 6일 베토벤 교향곡 1번을 시작으로 모두 52차례에 걸쳐 ‘화요영상음악감상회’(오후 7시)가 열린다. ‘베토벤 교향곡 전곡 감상’, ‘마리아 칼라스와 체칠리아 바르톨리’, ‘가을, 템포와 기타’,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로미오와 줄리엣’은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영화를 집중상영하는 ‘금요영화 감상회’(오후 7시)도 진행된다. ‘엘리자 마디간’, ‘아마데우스’, ‘사인’, ‘카프 베토벤’,



2009년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과 ‘한울림’이 연중 클래식 영상음악 감상회를 개최해 클래식 대중화에 나선다. 음악영화 ‘파리넬리’(위)와 ‘카프 베토벤’의 한장면.

‘오페라의 유령’ 등 음악 영화와 함께 ‘빈센트 반 고흐’, ‘프리다 칼로’ 등 예술가

음악영화도 집중 상영

들의 삶을 다룬 영화, 알프레드 히치콕과 오드리헵번 결혼선, 고전 뮤지컬 등 다양한 테마가 준비돼 있다.

대형 스크린과 수준높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는 클래식 음악감상실 한울림에서는 ‘수요 영상음악회’(오후 7시)가 열린다.

문의 베토벤 062-222-8410. 한울림 062-375-2214.

2009년 1월 7일 ‘빈 신년음악회 하이

라이트(1963~2007)’가 첫 테이프를 끊으며 12월 30일 요한 스트라우스의 오페레이터 ‘박쥐’까지 모두 52차례 감상회가 열린다.

주 테마는 ‘33개 오페라의 33명의 소프라노’, ‘1950~60년대 명연주’, ‘동심의 세계’, ‘이름다운 춤의 세계’이며 ‘카르멘’과 ‘노트르담 드 파리’를 오페라, 영화, 발레,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만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문의 베토벤 062-222-8410. 한울림 062-375-2214.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황석영 ‘개밥바라기별’ 올해의 책 1위 훔쓸어



황석영의 자전적 성장소설 ‘개밥바라기별’이 연말을 맞아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올해의 책’ 선정에서 1위를 훔쓸고 있다.

인터넷 서점 YES24는 누리꾼 투표 결과 황석영의 소설 ‘개밥바라기별’이 ‘올해

의 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밥바라기별’은 6만5천여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만5천287표를 얻어 2, 3위를 차지한 이외수의 에세이 ‘하악하악’과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제14회 광주미술상’에 판화가 임병중씨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연근)가 수여하는 ‘제14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판화가 임병중(43·사진)씨가 선정됐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광주 YMCA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이날 임씨와 함께 본심에 오른 한국화 강일호(38)씨, 미술 단체 (사)에っぽ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투표를 거쳐 임씨를 수상자로 뽑았다. 임씨에게는 1천만원의 창작 지원금이 주어졌고, 본심에 오른 강씨와 에っぽ에도 1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됐다.

임씨는 나무판에 실리콘을 덧칠한 뒤 나이프로 이미지를 새겨 넣는 기법을 통해 유화의 다양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목판화를 고집하고 있다. 울산의 반구대 귀신고래 암각화 등 옛 벽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대인들이 주술적인 의미로 벽화를 그렸듯, 그는 현시대의 사라져가는 생명과 자연이 회생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작품에 담고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 베이징, 서울, 부산 등지를 오가며 전시회를 했고 이스탄불국제판화비엔날레 등에 출품했다. 현재 광주현대관화가협회, 에っぽ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씨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산을 움긴다(愚公移山)’는 말처럼, 항상 노력하는 작가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08 광주연극인상

배우 이당금씨 수상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는 2008년 광주연극인상 수상자로 배우 이당금(39·푸른연극마을)씨를 선정했다.

이 씨는 ‘영산강비기’, ‘어미의 노래’, ‘머슴새’, ‘하늘신랑 땅각시’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으며 광주연극제 신인연기상(1995), 연기상(2000·2004)을 수상한 바 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제1회 조지훈 문학상

박덕중 시인 수상

광주에서 활동중인 박덕중(69) 시인이 최근 월간 ‘시와 시인’ 등이 후원하고 (사)한국시연구협회(회장 서청학)가 주최하는 제1회 조지훈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 시인은 197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저서로는 ‘빛들 겹은 물’ ‘소나기’ ‘동그란 거울’ ‘시간을 나를 깍는다’ 등이 있다.

한편 조지훈 문학상은 청록과 시인자 ‘승무’ ‘나화’ 등의 시로 널리 알려진 조지훈(1920~1968)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한국시연구협회가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이은미기자 emlee@

서양화가 정희남·조각가 정춘표 ‘2인전’



정희남 작 ‘해가 뜨고’

중견 서양화가 정희남(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과 조각가 정춘표씨가 오는 2009년 1월 10일까지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2인전을 갖는다.

‘엑스포와 함께’

제주도에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정희남씨는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시적인 풍경화를 선보이고, 정춘표씨는 풍만한 여인상을 새긴 대리석 조각품을 전시한다.

정희남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 회화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2001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미술치료를 연구했다. 또 구름

과 바람, 길, 하늘, 바다 등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고 있는 작가이다.

정춘표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정희남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 회화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2001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미술치료를 연구했다. 또 구름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래도, ‘환희의 송가’를 부르자

‘엄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은 다시 결합시킨다/’

그대의 고요한 나래가 맵추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의 노래’ 일부)

가난한 음악가 베토벤(1770~1827)은 실려의 시를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에 휩싸였다.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노래한 시는 각박한 현실에 지쳐 드러눕고 싶은 베토벤을 휘둘렀다. 벽찬 감동을 주제하지 못한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구여, 나는 이 시를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언젠가 음악으로 만들고야 말겠네.”

그의 나이 23살 때였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순탄치 않았다. 26살 때부터 그를 괴롭힌 귀병이 점점 심해져 서른 살 무렵엔 거의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악가에게 청력 상실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32살 때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 유서에는 그의 절망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재앙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술가에게 치명적이다. 납들보다 훨씬 풍부해야 할 감각 하나가 없다는 사실은 죽음 이외엔 길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초인적인 의지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웠다. 나무 작대기 한글은 피아노 위에 달게 하고, 다른 한글은 입에 문제 입술의 떨림을 통해 피아노의 진동을 느끼며 악보를 채워 나갔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 극장. 연주가 끝나자 청중석은 황호와 박수갈채로 떠나 같듯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선 단한 사람만이 그런 청중을 등 뒤로 외면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젊은 여가수가다가 그를 둘러세웠다. ‘불멸의 작곡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청중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음악사에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조연된 순간이다. 특히 실려의 ‘환희의 노래’를 가사로 쓴 4악장 ‘환희의 송가’는 대규모 혼성합창을 처음으로 도입한 교향곡이라는 점에서 (이날 공연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년 중 베토벤의 ‘합창’이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때가 요즘이다. 많은 유명 교향악단들이 헨델의 ‘메시아’와 ‘합창’을 레퍼토리로 송년무대를 장식하기 때문이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불후의 명곡을 탄생시킨 베토벤의 ‘인간승리’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세밀 분위기와 딱 들어맞아서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불행의 그늘로 고단해진 심신을 ‘합창’ 교향곡으로 추스려 보는 것은 어쩔까? 때마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30일 합창교향곡을 메인 레퍼토리로 송년공연(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을 갖는다. 만일 공연장을 찾는 게 여의치 않다면 음반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랠며 희망을 품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난청이란 ‘절대 절망’ 속에서도 환희를 노래한 ‘음악의 악상’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리전 광주
광주직영전시장 OPEN**

광주광역시 북구 풍정로 33-2 (부평동 1177-1)

010-4210-1111

보람상조

보람상조는 1995년 1월 1일 설립된 신생 보험사로, 2008년 12월 29일 광주지사로 진단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신생 보험사로 진단하고 있다.

모집 지역

- 광주지사
- 전남지사
- 제주지사

보람상조는 신생 보험사로 진단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신생 보험사로 진단하고 있다.